

An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 Difference by Disaster Information -

Soo Young Kim⁺

Department of Aging and Social Work,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Oryundae-ro, Geumjeong-gu, Busan, 46252,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PTSD of disaster victims, focusing on the differences among three groups with different levels of disaster information related to recovery and relief services: non-information, information trust, and information distrust. The 3rd wave data collected in 2018 by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were analyz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ate of PTSD level was highest in the information distrust group. Second, only the information trust group showed that information satisfaction affects the risk of PTSD. Third, the lower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the lower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relief aid and service distributions, the lower the PTSD rates for all groups. Fourth, gender, age, education, average monthly income, and social support were found significant factors in the non-information group, while education and average monthly income were found significant in the information trust group. The results highlight the need to provide reliable information on disaster in a variety of ways based on the level of PTSD symptoms according to the level of disaster information provided.

Key words: disaster, disaster victims, PTSD, mental health, disaster information

1. 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급격한 사회변화로 다양한 재난 상황과 맞닥뜨리고 있다. 지진, 홍수와 같은 단순 자연 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이라 일컬어지는 화재, 붕괴, 가스폭발, 전염병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사고들이 줄지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의 흐름 속에 2002년 메르스 사태, 2019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와 같이 한 국가에서 발

생한 재난문제가 전 지구적 단위로 영향을 미치며 대 단위의 피해를 양산해내고 있다.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재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UNISDR(UN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은 2005년 일본 고베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재해위험경감회의’에서 ‘효고 프레임워크(The Hyogo Framework for Action, 2005-2015)’를 합의·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안전도시를 위한 5가지 우선순위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모든 수준에서 안전문화와 회복력을 구축하기

⁺ Corresponding author: Soo Young Kim, Tel. +82-51-510-0836, Fax. +82-51-510-0838, e-mail. kimsy@cup.ac.kr

위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호주의 서호주주에서도 지역사회 복원력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정보 체계 강화, 대국민 정보 전달을 핵심역량으로 꼽고 있다(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2017). 즉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보 중심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급속한 정보화의 발달로 재난 발생 시 다양한 정보매체들이 관련 정보를 쏟아내고 있으며, 뉴스, 신문과 같은 기존의 정보제공방식에서부터 문자, SNS 등과 같이 새로운 형태들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지자체별로 휴대폰 방송서비스(Cell Broadcasting Service, CBS)를 활용해 재난관련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Financial News, 2020). 확진자 동선부터 안전 관련 수칙에 이르기까지 긴급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예방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재난을 경험한 피해자들의 경우 높은 비율로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같은 정신적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Hwang, 2019; Sim, 2019), Guo, et. al.(2014)의 연구에 따르면 재난피해자 중 58.2%가 재난발생 후 2개월 뒤 PTSD를 경험, 약 4년 뒤에도 8%의 피해자가 여전히 PTSD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매우 중요성을 갖는다.

또한 재난과 관련된 보도 및 소셜미디어 노출 수준과 PTSD 수준 간의 관련성을 제시한 연구결과들(He, et. al., 2018; Hall, et. al., 2019; Ma, et. al., 2019)을 살펴볼 때, 정보가 PTSD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재난정보에의 노출여부, 정보의 신뢰수준, 정보 만족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요소들을 고려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난피해자의 PTSD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함에 있어서 정보관련 요인을 포함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재난정보를 받은 집단과 받지 못한

집단을 구분하고, 재난정보를 받은 집단의 경우 신뢰할만한 정보를 받은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별 PTSD 수준의 차이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재난피해자의 PTSD와 정보요인 간의 관련성과 인과성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II. 이론적 배경

1. 재난피해자의 PTSD

PTSD란 스트레스의 한계를 넘는 경험을 한 후에 일어나는 심신장애(Naver Medicine · Dictionary of Nursing Abbreviations, 2020)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심각한 재난이나 사고, 전쟁 등을 겪은 피해자들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Lee & Ahn, 2016). Norris, et. al.(2002)의 연구에서 160건의 재난사건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결과 PTSD가 가장 많이 관찰된 심리적 문제로 밝혀졌다(Stewart, et. al., 2003). 특히 재난 발생 이후 심리적 충격을 완화시키고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분위기로 인해 재난피해자들은 심각한 PTSD를 보이고 있다(Kim & Lee, 2019). 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PTSD를 경험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가족갈등, 해체를 경험하며 사회적 간접비용을 증가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Kim & Lee, 2019). 이로 인해 재난피해자의 PTSD 문제는 개인 수준을 넘어서 다양한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동안 관련 선행연구들은 재난피해자들의 PTSD 수준(Jo & Ahn, 2014), 관련 영향요인(Lee & Kim, 2003; Joo & Ahn, 2008; Kim & Lee, 2019), 심리적 중재 효과(Hwang, 2019), 사후지원(Choi, 2006)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PTSD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성별, 연령(Sayed, et. al., 2005; Lee & Ahn, 2016), 가구유형, 교육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변인(Lee & Ahn, 2016), 경제적 어려움, 대인관계 신뢰 및 만족

(Lim & Sim, 2018), 정부와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Kim & Lee, 2019) 등이 도출되었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연구별로 상이한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제시한 연구들(Ahn, 2007; Joo & Ahn, 2008; Kim & Lee, 2019)도 있는 반면, Jo & Ahn(2014)의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Lee & Ahn(2016)의 연구에서는 관련 변인들을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들로 구성(Kazdin, *et. al.*, 1997; UN/ISDR, 2004)하는 것의 중요성을 제시하며, 개인차원의 조건들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요건을 모두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PTSD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개인적 요인인 인구사회학적 요인들, 환경과 사회적 요건을 포함시키는 사회적 지지, 구호지원과 서비스배분 만족도 등을 주요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2. 재난과 정보

재난이 발생하면 개인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재난관련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특히 최근 급속한 매스 미디어의 발달로 뉴스나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으며,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문자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재난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난과 정보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IT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관리자 측면에서 재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Kim & Kim, 2009; Lee & Kim, 2011)이나 정보시스템 개발(Lee & Kim, 2005; Son & Park, 2015; Jeong, *et. al.*, 2015; Yoo, *et. al.*, 2017), 의사결정과정 상의 정보비대칭 문제(Oh, 2007)에 관련된 연구들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재난관리 주체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재난 피해자 측면에서의 정보 역시 중요성을 가진다. Kim,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재난취약자를 정의함에 있어서 정보적 취약계층을 포함시켰으며, 구체적으로는 정보소외자를 한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즉, 재난관련

정보를 획득, 처리, 활용하는 데 있어 취약한 계층의 경우 재난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Oh(2007)에 따르면 재난 대응에 있어서 재난예·경보 발령을 실시함으로써 주민 차원에서 대피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재난대응 및 복구 활동 시 재난관리주체가 관련 정책 및 사업들의 전개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서 재난복구란 재해 발생 시 이전의 평시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활동(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2003)으로 재난예방, 대비, 대응과 더불어 재난관리의 4단계 중 마지막에 속하며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행연구들(Lee & Kim, 2005; Lee & Kim, 2018)은 재난 발생 이전의 위험 확인 및 발생 후 대응을 위한 관리 중심의 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Lee & Kim(2018)의 연구에서도 재난상황관리모델을 제시하며 재난대응 및 상황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 및 관리방법을 제안함에 따라 재난 현장 담당자 간의 정보공유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위한 직접적인 재난정보 공유방식 등은 논의되고 있지 않으며, 이들의 재난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보 제공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논의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Gang,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일원화된 재난 대응 방안 확보,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 주체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확성, 실용성이 담보된 정보의 경우 소셜서비스(SNS) 등을 활용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국민 안전권을 보장을 강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Kim & Park(2019)의 연구에서도 재난관리를 위해 시민대상 실시간 재난정보 제공 및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양자 간/다자 간 실시간 재난정보 영상통화 서비스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Koo & Baek(2018)의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재난안전 마을 구축을 위해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재난안전 정보 전달의 중요성이 도출되었다. Oh(2007)의 연구에서는 재난절차별 필요한 정보유형을 자연현상 규명·예측정보, 재난취약성 진단·평가 정보, 재난 저감·제어 정보, 재난대응·위기관리 정보, 재난 복구·재건정보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유형의 경우 재난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하고 재난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재난쓰레기 처리, 전력복구, 이재민 복구 지원 등과 관련된 관련 정보를 지칭한다. 이러한 정보는 지원금과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및 주민들 간에 경제적인 관련성을 띠는 것일 수도 있으며, 주민들은 지원기준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정부에 요청하게 될 수 있다.

국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미디어를 통해 제공된 정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재난과 관련된 뉴스를 포함한 소셜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노출된 경험과 PTSD 수준과의 관련성(He, *et. al.*, 2018; Hall, *et. al.*, 2019; Ma, *et. al.*, 2019)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Hall, *et. al.*(2019)에서는 재난관련 미디어에 노출된 시간이 많을수록 PTSD 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 Ma,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2008년 쓰촨성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 중 언론을 통해 추모 기사를 접한 시간이 많을수록 PTSD수준이 낮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재난정보의 속성에 따라 PTSD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경우 재난과 관련된 언론보도 위주로 제공된 정보에 국한하여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개인을 둘러싼 이웃, 지자체, 국가 단위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재난피해자들의 재난관련 정보 요인들(재난 이후 구호서비스 및 복구에 대한 정보 획득 여부, 신뢰수준, 정보만족감)과 PTSD 수준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선

행연구는 전혀 없다. 따라서 재난 발생 이후에 다양한 체계(이웃, 단체장,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에서 구호서비스 및 복구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 정보의 신뢰여부, 정보만족감 정도를 중심으로 PTSD 수준을 살펴보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018년도 재난피해자 패널조사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데이터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자연재난(풍수해, 지진)이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화재를 경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3차 데이터의 조사대상인 총 2,311케이스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변수 및 측정도구

1) 종속변수: PTSD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PTSD의 경우, Eun, *et. al.*(2005)의 외상 후 스트레스 척도(IES-R-K)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IES-R의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이며 총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없었다(1점)’에서 ‘매우 자주 있었다(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값은 .98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PTSD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신체적 건강 관련 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체계 속성을 갖는 사회적 지지, 구호지원과 서비스배분 만족도, 정보전달만족감이 사용되었다.

먼저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매우나쁘다(1점)’에서 ‘매우 좋다(7점)’까지 총 7

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건강수준이 높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함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 척도는 주위사람들은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준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와준다”를 포함한 12문항으로 구성되며,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측정된다. 총점이 높을수록 높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호지원과 서비스배분 만족도의 경우 “나는 적절한 양의 도움과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지원과 도움은 공정하게 배분되었다”를 포함한 5문항으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측정된다. 이 중 2문항은 역문항 처리 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원과 서비스 배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정보전달만족감의 경우 정보신뢰집단과 정보불신집단에만 해당되며, “제공받은 정보는 재난복구과정에 만족스러운 도움을 주었습니까?”에 대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1점)’에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4점)’으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재난정보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3) 인구사회학적 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에는 성별, 나이, 최종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배우자 유무가 포함되었다. 먼저 성별은 이분형 더미 변수(남성=0, 여성=1)로, 나이는 실제 나이를 연속형 변수로, 최종학력은 서열 변수(초졸미만=1, 초졸=2, 중졸=3, 고졸=4, 대졸이상=5)로, 월평균 가구소득도 서열 변수(100만원 미만=1,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2,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3,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4, 400만원 이상=5 ... 900만원 이상=10)로 구분하였으며, 소득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을 위해 (100만원 미만=1,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3,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4, 700만원 이상=5)로 재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유무는 이분형 더미 변수(무

배우자=0, 유배우자=1)로 구분하였다.

4) 집단 변수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크게 3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재난 후 구호서비스 및 복구과정의 정보를 전달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정보미제공집단과 정보제공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의 경우 제공받은 정보에 대해 신뢰할만하다고 응답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시 정보신뢰집단과 정보불신뢰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보미제공집단=0, 정보신뢰집단=1, 정보불신뢰집단=2로 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SPSS 21.0과 STATA/SE 12.0을 활용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χ^2 -test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정보제공에 따른 집단별 주요 변수들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t-test와 분산분석 전 정규성검정, 등분산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등분산을 가정할 수 없는 경우 Wilcoxon Rank-sum test와 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별 PTSD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귀분석 실시 전에 주요 변수들 간의 정규성 검증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1차적으로 재난 후 구호서비스 및 복구과정의 정보를 전달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정보를 전달받은 집단은 다시 정보신뢰여부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뉘었다. 따라서 연구대상자는 정보미제공집단, 정보신뢰집단, 정보불신뢰집단으로 총 3개로 구분되었으며, 이 세 집단의 인구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Group						χ^2/P
		Non-info (N=1479)		Info-trust (N=733)		Info-distrust (N=99)		
		N	%	N	%	N	%	
Gender	Male	660	44.6	311	42.4	38	38.4	2.132
	Female	819	55.4	422	57.6	61	61.6	
Education	Below elementary school	144	9.7	63	8.6	11	11.1	105.043***
	Elementary school	304	20.6	84	11.5	25	25.3	
	Middle school	239	16.2	139	19.0	14	14.1	
	High school	506	34.2	270	36.8	33	33.4	
	College and above	283	19.1	136	18.6	15	15.2	
Income	Under 1 million won	220	14.9	88	12.0	30	30.3	37.112***
	1-3million won	684	46.2	311	42.4	37	37.4	
	3-5 million won	435	29.4	252	34.4	27	27.3	
	5-7 million won	110	7.4	74	10.1	5	5.1	
	Over 7 million won	30	2.0	8	1.1	0	0.0	
Marital status	Not married	496	33.5	231	31.5	26	26.3	2.793
	Married	983	66.5	502	68.5	73	73.7	

* $p<.10$, ** $p<.05$, *** $p<.001$, Means are statistically different as determined Post-hoc Scheffe test at $p=.000$.

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먼저 정보미제공 집단은 1,479명, 정보신뢰집단은 733명, 정보불신집단은 99명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성별의 경우 모두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별 성별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모든 집단에서 고졸이 가장 많았으며, 집단별 학력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chi^2=105.043$, $p<.001$). 다음으로 월평균 소득은 세 집단 모두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각각 46.2%, 42.4%, 37.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37.112$, $p<.000$). 배우자의 경우 세 집단 모두 유배우자 비율이 더 높았으며 정보불신집단의 유배우자 비율이 7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 배우자 유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PTSD에 있어서 세 집단 간의 차이

정보미제공집단과 정보신뢰집단, 정보불신집단의 PTSD 정도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정보미제공집단의 PTSD 평균값은 36.040(SD=16.808)로 정보신뢰집단의 40.918(SD=16.990), 정보불신집단의 52.232(SD=18.219)보다 낮게 나타났다. 세 집단 간 PTSD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55.496$, $p<.000$). 다음으로 사후검정(Post-hoc)을 실시한 결과 정보불신집단, 정보신뢰집단, 정보미제공집단 순으로 PTSD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3. 주요 변인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비교

주요변인에 대한 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나이의 경우 정보불신집단이 평균 63세(SE=13.397)

Table 2. Differences among the three groups regarding PTSD scores

Group	N	Mean	S.D.	F/P	Scheffe test
Non-info (a)	1479	36.040	16.808	55.496***	c>b>a
Info-trust (b)	733	40.918	16.980		
Info-distrust (c)	99	52.232	18.219		

*** $p<.001$

Table 3. Differences among the three groups regarding main factors

	Group	N	Mean	S.D.	$z/F/\chi^2$	Scheffe test
Age	Non-info (a)	1479	58	17.672	14.125***	a>c*
	Info-trust (b)	733	57	15.982		
	Info-distrust (c)	99	63	13.397		
Health status	Non-info (a)	1479	4.425	1.415	30.534***	a>c***, b>c***
	Info-trust (b)	733	4.408	1.306		
	Info-distrust (c)	99	3.616	1.390		
Social support	Non-info (a)	1479	41.102	7.347	26.306***	b>a***, b>c***
	Info-trust (b)	733	43.321	6.953		
	Info-distrust (c)	99	40.020	6.688		
Relief support and distribution satisfaction	Non-info (a)	1479	15.036	2.046	22.456***	a=b>c***
	Info-trust (b)	733	15.484	2.302		
	Info-distrust (c)	99	14.121	2.265		
Information satisfaction	Info-trust (b)	733	2.928	0.489	-.814	
	Info-distrust (c)	99	2.030	0.579		

* $p<.10$, ** $p<.05$, *** $p<.001$, Means are statistically different as determined Post-hoc Scheffe test.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보미제공집단이 58세 (SD=17.672), 정보신뢰집단 57세(SD=15.982)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나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14.125$, $p<.000$)이며 사후검정(Scheffe test) 결과 정보불신집단이 정보미제공집단 보다 연령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는 1점에서 7점 순으로 높아지며, 정보미제공집단의 평균이 4.425(SD=1.415)로 가장 높았고, 정보신뢰집단 4.408(SD=1.306), 정보불신집단 3.616(SD=1.39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30.534$ $p<.000$).

사후검정 결과 정보미제공집단이 정보신뢰집단보다, 정보미제공집단이 정보불신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의 경우 정보신뢰집단이 평균 43.321 (SD=6.953), 정보미제공집단 41.102(SD=7.347), 정보불신집단 40.020(SD=6.688) 순으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F=26.306$, $p<.000$). 사후검정 결과 정보신뢰집단이 정보미제공집단과 정보불신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사회적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구호지원과 서비스배분 만족도는 정보신뢰집단이 평균 15.484(SD=2.302), 정보미제공집단 15.036(SD=2.046), 정보불신집단 14.121(SD=2.265)

순으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F=22.456$, $p<.000$). 사후검정결과 정보불신집단의 만족도가 정보미제공집단과 정보신뢰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보전달만족감은 정보가 제공된 두 집단만 측정이 되었는데, 정보신뢰집단이 평균 2.928(SD=.489), 정보불신집단이 2.030(SD=.57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z=-.814$, $p<.000$).

4. PTSD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먼저 PTSD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전,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상관계수는 모두 0.6 이하로 변수 간 낮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재난피해노인의 PTSD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세 집단의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Table 4>와 같다. 먼저 분산팽창계수(VIF)가 모두 2미만으로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귀분석 결과, 정보미제공집단의 회귀분석모형은 유의하였으며($F=54.341$, $p<.000$), 모델의 설명력은 22.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보신뢰집단의 회귀분석모형 역시 유의하였으며 ($F= 30.383$, $p<.000$) 모델의 설명력은 26.5%였다. 마지막

Table 4. Regression by three groups

	Non-Info Group (N=1479)			Info-Trust (N=733)			Info-Distrust (N=99)		
	Non-standardized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Non-standardized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Non-standardized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B	S.E.	β	B	S.E.	β	B	S.E.	β
(Constant)	92.867	4.088		109.301	5.999		128.114	15.447	
Gender (ref=male)	-4.723	.789	-.140***	-.579	1.108	-.017	2.496	3.346	.067
Age	-.064	.028	-.067*	-.037	.041	-.035	-.158	.138	-.116
Education	.003	.001	.068**	.001	.000	.120***	-.001	.002	-.050
Income	-1.282	.252	-.133***	-.895	.378	-.085*	-1.537	1.153	-.131
Health status	-3.730	.327	-.314***	-4.447	.475	-.342***	-6.174	1.223	-.471***
Marital status (ref=not married)	.293	.877	.008	1.806	1.257	.049	1.473	3.661	.036
Social Support	-.240	.054	-.105***	-.121	.082	-.050	-.026	.240	-.009
Relief support and Distribution satisfaction	-1.379	.192	-.168***	-2.005	.254	-.272***	-2.358	.739	-.293**
Information satisfaction				-3.023	1.166	-.087*	-3.498	2.807	-.111
F	54.341***			30.383***			6.243***		
R ²	.288			.274			.387		
Adj R ²	.224			.265			.325		

* $p < .10$, ** $p < .05$, *** $p < .001$

막으로 정보불신집단의 회귀분석모형 역시 유의하였으며($F = 6.243, p < .000$) 모델의 설명력은 32.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집단 별 PTSD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를 살펴보면 첫째, 정보미제공집단의 경우 성별($b = -4.723, p < .000$), 나이($b = -.064, p < .05$), 최종학력($b = .003, p < .01$), 월평균소득($b = -1.282, p < .000$), 주관적 건강상태($b = -3.730, p < .000$), 사회적 지지($b = -.240, p < .000$), 구호지원과 서비스배분 만족도($b = -1.379, p < .000$)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보신뢰집단을 살펴보면 최종학력($b = .001, p < .000$), 월평균소득($b = -.895, p < .05$), 주관적 건강상태($b = -4.447, p < .000$), 구호지원과 서비스배분 만족도($b = -2.005, p < .000$), 전달정보만족감($b = -3.023, p < .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보불신집단을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상태($b = -6.174, p < .000$), 구호지원과 서비스배분 만족도($b = -2.358, p < .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재난피해자의 PTSD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하기 위해 정보신뢰집단, 정보불신집단, 정보미제공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재난피해자의 PTSD와 정보와의 관련성을 고찰한 선행연구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정보전달여부, 신뢰여부, 정보만족감 수준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정보불신집단의 나이가 평균 63세로 가장 많았으며,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구호지원과 서비스배분 만족도 수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보전달만족감에서도 역시 정보불신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나, 이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집단별 PTSD 정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정보불신집단, 정보신뢰집단, 정보미제공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정보가 제공된 집단이 미제공

된 집단보다 PTSD 평균값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재난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정보가 집중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혹은 관련 정보가 제공됨으로 인해 오히려 PTSD가 높아졌는지는 본 연구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정보제공집단별로 분리해서 볼 때 정보를 신뢰한 집단의 PTSD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관측된 것으로 판단해 볼 때, 정보에 대한 신뢰수준에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로 Hall, et. al.(2019)의 연구에서 재난 관련 보도에 노출된 시간이 많을수록 PTSD 수준이 높아졌으며 Ma,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추모기사를 접한 시간이 많을수록 PTSD 수준이 낮았다는 점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속성이 피해자들의 정신건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은 아닌지 추측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재난피해자의 PTSD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집단별로 확인한 결과 먼저 전체 집단별로 동일하게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요인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구호지원과 서비스배분 만족도였으며,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수준이 높을수록, 구호지원과 서비스배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PTSD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보미제공집단의 경우 여성일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PTSD 수준이 낮았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Lee, et. al., 2003; Sim, 2019)와는 반대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PTSD 수준이 높았으며 이것은 기존의 선행연구결과(Ozer, et. al., 2003; Kaniasty & Norris, 2008; Kim & Lee, 2019)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난 이후 충분한 정보가 다각도로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의 경우 특히 남성일면서 연령대가 낮고, 사회적 지지층이 얇은 집단에 대한 정신건강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정보미제공집단과 정보신뢰집단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PTSD가 높게 나타났다. 정보만족감의 경우 정보신뢰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정보만족감이 높을수록

PTSD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불신집단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와 구호서비스만족도만 PTSD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재난피해자를 위한 본 연구의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피해자의 PTSD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재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제공된 정보에 대한 신뢰도 수준은 정보에 대한 만족감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PTSD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과 주제 선정에 보다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 및 실천방안들이 활발하게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재난피해자가 구호 및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정보를 획득, 이해하는 능력이 낮아 정보 소외 현상을 경험할 가능성 등을 폭넓게 열어두고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연구결과에서 재난정보를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 중 남성, 저연령, 고학력, 낮은 소득 계층의 경우 PTSD와의 관련성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러한 계층을 위한 다양한 개입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관적 건강상태와 구호지원과 서비스배분 만족도의 경우 PTSD를 예측할 수 있는 공통요인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집단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재난 후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례발굴을 위해 건강상태가 나쁘고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재난피해자들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난피해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좀 더 다각적인 시점과 방법을 통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재난 발생 후 복구와 회복을 위한 정보전달뿐만 아니라 발생 전 예방과 대비를 위한 정보전달

방식을 포함한 전 단계에서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피해완화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이 재난 후에 이루어지는 복구와 서비스 전달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채널을 다각도로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을 발굴하여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이웃, 지자체장, 담당 공무원 등을 통해 주로 제공되던 관련 정보들을 좀 더 폭넓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 주체들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복지관, 상담센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한 재난정보와 PTSD 수준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패널 자료 문항의 한계 상 여러 측면에서의 정보들을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한 다양한 연구들을 후속 연구에서 진행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9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피해자안심서비스구축> 연구 지원으로 진행되었음.

References

- An, M. O. 2007. The Effects of Traumatic Experience, Coping Skill, Emotion Regulation, and Social Support on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dolescents. Master's Thesis. Hallym University.
- Cho, M. K. and H. S. Kim. 2015. Study on Disaster Management System: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Cases.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KSCE Falls Conference. 99-100.
- Cho, Y. R. and R. Y. Ahn. 2014. Psychosocial Risk Factors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 Severity in Victims of Artillery Attack on Yeonpyeong Island.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4): 875-893.
- Choi, N. H. 2006. Disaster Victim Post-assistance: Disaster Victims' Social Welfare. *Crisisonomy*. 2:(2): 1-18.
- Eun, H. J., T. W. Kwon, S. M. Lee, T. H. Kim, M. R. Choi, and S. J. Cho. 2005. A Study 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4(3): 303-310.
- Financial News. 2020. 3. 3. How Did You Know My Number for "Sending Disaster Text?". <https://www.fnnews.com/news/202003031219520073>
- Gang, S. M., S. Y. Choi, Y. J. Jeong, J. M. Kim, and H. C. Park. 2016. A Study on Developing a Dike Line Mapping Method Using Airborne LiDAR Data and High-resolution Imagery. KSCE 2016 Convention Program. 363-364.
- Guo, J., H. He, M. Fu, Z. Han, Z. Qu, X. Wang, and L. Guan. 2017. Suicidality Associated with PTSD, Depression, and Disaster Recovery Status among Adult Survivors 8 Years After the 2008 Wenchuan Earthquake in China. *Psychiatry Research*. 253: 383-390.
- Hall, B. J., Y. X. Xiong, P. Yip, C. K. Lao, W. Shi, E. Sou, K. Chang, L. Wang, and A. Lam. 2019. The Association between Disaster Exposure and Media Use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Following Typhoon Hato in Macao, China.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10(1): 1558709.
- Hwang, J. H. 2019. Effects of Post-traumatic Stress Interventions for Disaster Victims: Meta-analysis. Ph.D. Dissertation. Inje University.
- Hyun, S. H. 2015. Problem of Korean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d Methods of Its Efficiency. *The Journal Korea Association of Safety and Security*. 10(1): 39-56.
- Jeong, I. K, S. Y. Park, J. T. Choi, and C. W. Choi. 2015. Data Current Analysis of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Academic Seminar 2015. 230-231.
- Jo, Y. R. and S. S. Yang. 2013. Peri-traumatic Dissociation, Post-traumatic Negative Beliefs, and Poor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Long-term Psychological Symptoms Following a Natural Disaster.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4): 955-979.

- Joo, H. S. and H. N. Ahn. 200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osttrauma Risk Checklist.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7(1): 235-257.
- Kaniasty, K. and F. H. Norris. 2008. Longitudinal Linkages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Sequential Roles of Social Causation and Social Selection.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1(3): 274-281.
- Katz, C. L., L. Pellegrino, A. Pandya, A. Ng and L. E. DeL. 2002. Research on Psychiatric Outcomes and Interventions Subsequent to Disasters: A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iatry Research*. 110(3): 201-217.
- Kazdin, A. E., H. C. Kraemer, R. C. Kessler, D. J. Kupfer, and D. R. Offord. 1997. Contributions of Risk-factor Research to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lin Psychol Rev*. 17(4): 375-406.
- Kim, J. K. and C. S. Park. 2019. A Comparative Study on the Importance of the Components of the Community Disaster Resilience on Disaster Respon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15(3): 33-346.
- Kim, J. S. and S. Y. Lee. 2019. The Effect of Psychosocial Factors on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Groups of Natural Disaster Victim.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4(3): 669-693.
- Kim, K. M. and T. H. Kim. 2009. A Study on How to Share Disaster Information Using UCC.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Academic Seminar 2009. 57-77.
- Kim, S. D., S. H. Lee, K. H. Choi, and C. S. Cheung. 2017. A Comparative Study of On-site Action Manual for People with Disaster Vulnerability.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13(2): 155-162.
- Koo, W. H. and M. H. Baek. 2019.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Survey for the Establishment of Safety Village in Disaster.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14(3): 238-246.
- Lee, C. Y. and T. H. Kim. 2011. A Study of the Disaster Sign Data Analysis Technologies Based on Ontology.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7(3): 220-228.
- Lee, I. S., Y. S. Hah, K. J. Kim, J. H. Kim, Y. H. Kwon, and N. Y. Lee. 2003. A Field Study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 Community after Typhoon Rus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6): 829-838.
- Lee, J. E. and K. H. Kim. 2005. Analysis on Status of NDMS and Disaster Management Information Sharing.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9(4): 191-214.
- Lee, N. B. and H. N. Ahn. 2016. A Meta Analysis Study of Predictors of Disaster Victims' Post-traumatic Stress Response Based on Ecological Model.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5(4): 525-562.
- Lim, H. S. and K. O. Sim. 2018. The Effects of Life Changes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fter Disaster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6(4): 319-326.
- Ma, X., X. Liu, X. Hu, C. Qiu, Y. Wang, Y. Huang, Q. Wang, W. Zhang, and T. Li. 2011. Risk Indicators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dolescents Exposed to the 5.12 Wenchuan Earthquake in China. *Psychiatry Research*. 385-391.
- Min, M. K., H. S. Joo, and H. N. Ahn. 2018. Psychosocial Factors Influential to the Mental Health of the Public Indirectly Affected by the 9/12 Gyeong-ju Earthquake: Focusing on Individual Resilience, Social Support, Social Capital, and Public Trus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9(5): 93-116.
-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2017. 2017 Disaster Victim Panel Survey Data Explanatory Data.
-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2003. Reducing Disaster Vulnerability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 Naver Medicine • Dictionary of Nursing Abbreviations. 202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133906&cid=60408&categoryId=59580>.
- Norris, F. H., M. J. Friedman, P. J. Watson, C. M. Byrne, E. Diaz, and K. Kaniasty. 2002. 60,000 Disaster Victims Speak. Part I: An Empirical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1981-2001. *Psychiatry*. 65(3): 207-239.
- Oh, K. H. 2007. The Application of Asymmetric Information Problem to the Decision Making Trends of the Disaster Management Units in the Recovery Process. *Crisisonomy*. 3(1): 75-86.
- Ozer, E. J., S. R. Best, T. L. Lipsey, and D. S. Weiss. 2003. Predictor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Symptoms in Adult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9(1): 52-73.

- Sayed, S., B. M. Iacoviello, and D. S. Charney. 2015. Risk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Following Trauma. *Current Psychiatry Reports*. 17(8): 612.
- Sim, G. O. 2019. The Relationships between Increased Alcohol Consumption in Disaster Victims, PTSD and Depressio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Korean Journal of Addiction Psychology*. 4(1): 19-30.
- Son, K. C. and C. S. Park. 2015. Luhmann's Sociology of Risk and Disaster Information Communication.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Academic Seminar 2015. 217-220.
- Stewart, S. H. and T. L. Mitchell, K. D. Wright, P. Loba. 2004. The Relations of PTSD Symptoms to Alcohol Use and Coping Drinking in Volunteers Who Responded to the Swissair Flight 111 Airline Disaster.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8(1): 51-68.
-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UN/ISDR). 2004. *Living with Risk: A Global Review of Disaster Reduction Initiatives*. Geneva, UN/ISDR.
- Yoo, E. J., N. G. Kim, and G. Y. Gwak. 2017. Disaster Safety Information Network Analysis: Realization of Smart Work System Based on Disaster Cases. The Korea Society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Academic Seminar 2017. 46-53.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강수명, 최수영, 정운재, 김진만, 박현철. 2016. 효율적인 재난정보 공유 및 표준화를 위한 시설물 Risk 정보 표출 및 확산 시스템 설계방안.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363-364.
- 구원희, 백민호.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의식조사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14(3): 238-246.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7. 2017년 재난피해자 패널조사 데이터 설명자료.
- 김경민, 김태환. 2009. UCC를 이용한 재난정보 공유방안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57-77.
- 김수동, 이사홍, 최길현, 정종수. 2017. 재난취약자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비교연구: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 대상으로.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13(2): 155-162.
- 김지선, 이소연. 자연재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PTSD) 집단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3): 669-693.
- 김진근, 박찬석. 2019. 지역사회 재난회복력 구성요소와 재난관리정책 결정요인 분석. 한국재난정보학회. 15(3): 33-346.
- 네이버 의학·간호 약어해설사전. 202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133906&cid=60408&categoryId=59580>
- 민문경, 주혜선, 안현의. 2018. 912 경주 지진을 간접 경험한 일반인의 정신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개인 리질리언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본, 공적 신뢰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9(5): 93-116.
- 손기천, 박충식. 2015. 루만의 위험사회학과 재난정보 소통.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217-220.
- 심경옥. 2019. 재난피해자들의 음주량 증가, PTSD, 그리고 우울 증 간의 관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중독. 4(1): 19-30.
- 안무옥. 2007. 청소년의 외상경험정서조절 대처 방식 및 사회 지지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대학원.
- 오금호. 2007. 재난관리 주체의 의사결정에 대한 비대칭정보 문제의 적용. 한국위기관리논집. 3(1): 75-86.
- 유은지, 김남규, 광기영. 2017. 재난안전정보 네트워크 분석 : 재난 사례 기반의 스마트워크 시스템 구현.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 46-53.
- 은현정, 권태완, 이선미, 김태형, 최말래, 조수진. 2005.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44(3): 303-310.
- 이나빈, 안현의. 2016. 생태체계이론에 기반한 재난피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변인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4): 525-562.
- 이인숙, 하양숙, 김기정, 김정희, 권용희, 박진경, 이나윤. 2003. 일개 지역사회 재해 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도와 관련요인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3(6): 829-838.
- 이재은, 김겸훈. 2005. 재난관리 정보공유와 NDMS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정책과학회보. 9(4): 191-214.
- 이창열, 김태환. 2011. 온톨로지 기반 재난 전조 정보 분석 기술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7(3): 220-228.
- 임혜선, 심경옥. 2018. 재난 후 생활변화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영향. 대한스트레스학회. 26(4): 319-326.
- 정인규, 박소영, 임정탁, 최창원. 2015.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데이터 현황 분석.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230-231.
- 조민경, 윤홍식, 김효석. 2015.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고찰: 해외사례 비교분석. 대한토목학회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99-100.
- 조용래, 안류연. 2014. 연평도 포격 피해 주민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심각도와 심리사회적 위험요인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4): 875-893.
- 조용래, 양상식. 2013. 자연재난 생존자들의 장기적인 심리적 증상들에 대한 예측요인으로서 외상 당시의 해리, 외상 후 부정적 신념 및 사회적 지지 부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4): 955-979.
- 주혜선, 안현의. 2008. 외상 후 위기 체크리스트 개발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일반. 27(1): 235-257.
- 최남희. 2006. 재난 피해자 사후 지원: 재난 피해자의 사회 복귀. 한국위기관리논집. 2(2): 1-18.
- 파이낸셜뉴스. 2020년 3월 3일자. '재난문자 발송' 내 번호는 어떻게알았지? <https://www.fnnews.com/news/202003031219520073>
- 현석환. 2015.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과 효율화 방안. 한국사회안전학회지. 10(1): 39-56.
- 황종원. 2019. 재난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재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박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대학원.

Received: Apr. 3, 2020 / Revised: May 16, 2020 / Accepted: May 16, 2020

재난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관한 연구

- 재난정보제공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중심으로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 피해자의 PTSD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복구 및 구호서비스와 관련된 재난정보제공에 따른 집단(정보미제공, 정보신뢰, 정보불신)별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분석을 위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2018년도 3차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불신집단의 PTSD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정보신뢰집단만 정보만족감이 PTSD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관적 건강상태와 구호지원과 서비스 배분 만족도가 낮을수록 모든 집단의 PTSD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재난정보미제공집단은 성별, 나이, 최종학력, 월평균소득, 사회적 지지가, 정보신뢰집단은 학력, 월평균소득이 추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난정보제공 수준에 따른 PTSD 차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신뢰도 높은 재난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 재난, 재난피해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정신건강, 재난정보

Profiles **Soo Young Kim** : She received Ph. D. degrees in Social Work from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2018. She is an assistant professor at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She has published articles and books, including pieces in Journal of Correction Review,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Journal of Crisisonom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and Journal of Social Welfare Policy. She received the 2018 PNU Graduate Academic Award for excellent paper. Her research explores the administration, disaster, elderly and multidimensional poverty(kimsy@cup.ac.kr).